

# 근대 초기 『慶南日報』 소재 소설의 의미 연구\*

김희주\*\*

##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근대 초기 유일한 지역신문이었던 『경남일보』에 연재된 소설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구하는데 있다. 『慶南日報』는 1909년 8월 19일, 대한제국 정부의 인가로 경남 진주지역에서 발행된 근대 초기 한국의 유일한 지역신문이다. 장지연을 주필로 하여 동년 10월 12일 주주총회(株主總會)를 개최하고 사흘 후인 10월 15일 창간호를 간행하였다. 소설은 『경남일보』의 발행 목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소설을 통해 교육과 계몽이라는 목적을 문학적으로 달성하려는 시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문은 법령이나 행정, 중앙정계 동향 등 주로 정보 전달 위주였고 지역민의 일상이나 감정이 투영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순한글 소설의 도입은 신문이 매체로서 지역민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려는 전환점이었다. 또한, 순한글이라는 문체의 변화 역시 부녀자 등 새로운 독자층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재된 소설은 <교기원(巧奇筭)>, <금산거사(琴山居士)>, <무정화(無情花)>, <옥련당(玉蓮堂)>, <운외운(雲外雲)> 등이 있다. 이들 소설은 점차 작가명을 공개하고 장르를 구분하는 등 문학작품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교기원>과 <금산거사>는 완결된 형태로 남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경남일보』는 초기에 정보제공 기능에만 집중했으며, 지역민과의 정서적 소통은 거의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慶南日報』의 소설 도입과정은 지역민과의 소통으로 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6884)

\*\* 국립공주대학교 교양학부 비전임교수

능을 확장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특히 1면 고정란이었던 <삼강의 일사>가 소설로 대체된 것은 유교적 도덕 담론에서 탈피해 독자 수요에 따른 콘텐츠 전환을 보여준다. 이는 근대 초기 한국 사회에서 신문이 지역민과의 새로운 접점을 형성하며 문학과 교육, 계몽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던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경남일보, 식민지 시기, 진주지역, 지역신문, 순한글 소설, 국한문체 소설, 지역신문소설, 신소설, 근대소설

목차

1. 서론
2. 『慶南日報』의 소설 연재 과정의 의미와 특성
3. 계몽의 문법: 인물형과 가치관의 제시 방식
4. 문학의 사회적 기능: 소설을 통한 실업 장려와 근대적 시민 양성
5. 결론

##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근대 초기 한인이 만든 유일한 지역신문이었던 『경남일보』에 수록된 소설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구하는 데 있다. 『慶南日報』는 1909년 8월 19일, 대한제국 정부의 인가로 경남 진주지역에서 발행된 근대 초기 한국의 유일한 지역신문이다. 장지연을 주필로 하여 동년 10월 12일 주주총회(株主總會)를 개최하고 사흘 후인 10월 15일 창간호를 간행하였다. 대체로 유생출신(儒生出身)의 지방지식인들이 임원진을 이루었으며, 발행부수는 대략 1천부 미만이었다. 창간호는 현존하지 않으며, 2호인 융희 3년<sup>1)</sup> 11월 5일자에는 본 신문이 정치와는 무관하게 민지계발

1) 광무10년(1906년), 광무11년(1907년), 융희2년(1908년), 융희3년(1909년), 융희4년(1910년) 등, 『慶南日報』의 창간 당시에는 대한제국의 연호를 따랐다.

(民智啓發)과 실업장려(實業獎勵)에 진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법률과 지방자치의 사상을 보급하며, 삼강에 관련된 사화(史話)를 선양하고, 실업과 교육을 장려·보급하는 역할이 『慶南日報』의 주된 목적이었다. 잡보(雜報)를 통해서는 <중앙정계(中央政界)>와 <경성통신(京城通信)>, <수문쇄록(隨聞鎖錄)>이라는 제하에 중앙정계의 동향과 지방사정을 보도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광무 신문지법으로 경남 관찰부의 사전검열을 받았으며, 이 검열에 의해 폐간되었다.

『慶南日報』의 면수는 총 4면이다. 소실된 1호를 제외하고 융희3년 11월5일(2호) 금요일, 융희 3년 11월6일(3호) 토요일, 융희 3년 11월 7일(4호) 일요일에 발행하였으며, 5호는 격주의 화요일인 융희 3년 11월16일에 발행되었다. 초기 월요일은 보통 휴간하였으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문을 발행하되, 화요일의 발행은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또는 격주의 화요일로 불규칙했다. 후반부에는 격일로 발행하였지만, 총 4면의 면수는 고수하였다. 4면의 대부분은 근대법과 중앙정부에 관한 정보,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일반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는 기능하지 않았다.

『慶南日報』는 순한문 또는 국한문체를 고수하였다. 한문 위주였던 이 신문에서 순한글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광고였다. 부녀자들을 그려 넣은 염색약 광고였는데, 순한문 또는 국한문체의 여느 광고와 달리 순한글 광고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지역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고는 초기에는 4면 일부에만 게재되었지만,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여 총 4면 중 4면 전체 혹은 3면의 반을 차지할 만큼 증가했다.

순한글 소설의 게재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염색약 광고를 시작으로 순한글의 <우스운 일>같은 일화가 3면 상단에 실리다가, 소설이 7분할의 한 칸 정도를 차지하며 게재되었다. 이는 『慶南日報』가 초기 제시한 발행 목적에 없던 항목이었다. 후반부에 나타난 순한글 광고라든지, 순한글 소설의 등장은 신문사의 재정난에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소설의 게재과정

은 구독자들과의 반응과 밀접하게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慶南日報』는 주로 3면과 4면에 광고를 실었으며, 순한글의 일화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순한글 소설 또한 초기에는 주로 신문 3면에 실렸고 가로 7분할의 지면에서 겨우 한 칸만을 차지했었다. 또한, 소설의 작가도 없었다. 그러던 소설이 3면에서 1면에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제1면 하단에는 고정란 〈三綱의 逸史〉가 있었다. 주로 유교 덕목을 실행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소설이 등장하면서 이 자리를 소설이 대신한다. 신문 1면은 핵심 기사가 가장 먼저 실리는 곳이다. 이 1면의 반을 소설로 채웠다는 점은 지역인들과의 소통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초기 지역 지식인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신문이 한글 독해가 가능한 지역민들까지 구독자로 수렴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작가명을 밝히고 소설의 영역도 확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소설의 장르를 구분하고 작가를 밝히기 시작하고 한 지면에 소설 두 개를 게재하는 결단은 설령 그것이 신문의 발행부수의 증가와 별개로 발행인들의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慶南日報』의 발행목적은 정치와 무관한 교육과 실업장려였다. 〈삼강의 일사〉라는 고정란을 없애고 여기에 소설을 대체한 이유는 교육과 실업 장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는 발행인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행인들은 소설이 근대법만큼이나 중요한 교육의 수단으로 소설을 새롭게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일보』에 게재된 소설은 〈巧奇冤〉, 〈琴山居士〉 〈無情花〉와 〈玉蓮堂〉, 〈雲外雲〉등 총 5편이다.

1. 〈巧奇冤〉(1회~16회):1912.1.16.~1912.2.9.)
2. 〈琴山居士〉(제1회~5회):1912.1.28.~1912.2.5.)

3. 〈無情花〉(제1회~3회):1912.2.7(영인본 없음)~1912.2.11.)
4. 〈玉蓮堂〉상권(제1회~3회):(1912.2.11.~1912.12.15.)이후 영인본 없음.
5. 〈雲外雲〉上卷:1913년 8월9일자(제636호)<sup>2)</sup> (더 이상 영인본 없음)

위 다섯 편의 소설에서 1회부터 시작하여 완료된 소설은 〈巧奇冤〉과 〈琴汕居士〉뿐이다. 본고는 이 두 소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고, 『慶南日報』가 소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고구<sup>3)</sup>하였다.

## 2. 『경남일보』의 소설 연재 과정의 의미와 특성

근대 초기 지역신문이 지닌 위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신문은 당대의 지역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한국의 정세를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었다. 보통의 지역신문은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뉴스, 사건, 이슈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지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민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문화,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의 축진하며 지역 내 행사나 활동을 홍보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신문을 통해 소수 의견이나 사람들의 목소리

2) 상권 영인본은 영남대학교 소장본과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劉載天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제636호(1913년8월9일자)1부를 제공받아 함께 영인한 것이다. 유재천교수가 제공한 제636호는 1913년도 발간된 『慶南日報』의 체제를 알 수 있어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현존하지 않음. 현재 제2호~제99호, 제141호~제260호, 제325호~제380호, 제636호 )1915년 초까지 총887호가 발행되었다. -(해제) 민족문화연구소, 『慶南日報』(上),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6.

3) 본고에서의 소설 분석은 완성화된 소설인 〈교기전〉과 〈금산거사〉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慶南日報』는 그러한 점에서 신문의 본질에서 다소 벗어난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慶南日報』는 근대 법률과 행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현행법령의 여러 가지 세법(민적법, 국세징수법, 가정세법, 삼림법, 어업법)등은 독자들과의 소통보다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에 초점을 둔 것이며, 〈잡보〉란의 ‘中央政界’, ‘京城通信’, ‘隨聞瑣錄’등은 국내 내각 뿐 아니라 통감부의 정황도 지속적으로 주시했음을 알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관한 기사는 일회성이 아닌 각각 고정란이 따로 있었으니, 지역과 서울의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와 함께 지역지식인들의 국가정세에 대한 소의를 최소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의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과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慶南日報』는 현행 근대법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다. 새롭게 등장하는 근대법에 대한 정보를 주도적으로 게재했다는 점은, 이 신문이 식민지의 현실적인 면만을 수용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초기의 신문지면에는 지역민들의 생활상이나 소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일환으로 1면에 게재되었던 〈삼강의 일사〉는 교육창가로 대체되다가 소설란으로 바뀌었다. 〈보통교육창가〉는 〈삼강의 일사〉란을 대신하여 게시된 최초의 한글이었다.<sup>4)</sup> 교육창가는 소설을 게재하기 시작하면서는 보이지 않았다. 소설란은 폐간에 이르기까지 1면에 고정적으로 게재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소설을 통해 『慶南日報』가 매체로서의 역할과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제1면의 고정란 〈三綱의 逸史〉가 소설로 대체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고전 소설이 지향했던 신화적·민담적 요소, 유교 덕목들 대신 대중이 소설을 원했다는 의미이다. 지역신문 내의 소설연구는 그 지역사회의 변동과

4) 김희주, 「근대초기 한국의 지역신문 연구」, 『우리어문연구』 통권74호, 우리어문학회, 2022, 19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지식인 대상이었던 신문이 점차 다양한 독자들에 의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만은 예외적으로 한글 소설로 게재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교육의 방식을 지역민들의 의견을 투영하여 새롭게 제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教育彙報〉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발행인들은 지역민들의 근대 교육 보급에도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된 신문에 ‘소설’란이 등장한 것은 1897년 1월12일 『한성신보(漢城新報)』이다. 그러나 『한성신보(漢城新報)』에 소설란이 있다하여 특별히 소설이라는 양식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sup>5)</sup> 이 신문 이후 신문에서 소설란이 발견되는 것은 국한문판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이다. 1906년 2월 6일 한글로 된 〈청루의녀전〉을 연재하였다. 이후 『제국신문』, 『황성신문』, 『경향신문』 등이 모두 소설란을 두었다.

『慶南日報』 1909년 11월5일자(2호분)부터 1913년 8월9일자 제636호까지를 검토<sup>6)</sup>한 결과, 초기 제1면에는 〈外報〉, 〈現行法令新〉, 〈地方民權自治制〉, 〈三綱의 逸史〉, 〈詞藻〉 등의 고정란, 2면에는 〈雜報〉와 〈中央政界〉, 〈隨聞瑣錄〉의 고정란, 3면에는 〈教育彙報〉 등의 고정란<sup>7)</sup>이 있었다. 4면은 〈官報〉, 〈農業界〉, 〈工業界〉, 〈商業界〉, 아주 조금의 광고 등을 실었다. 그러나 점차 광고란은 늘어 때로 4면 전체가 광고지면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경남일보사는 재정난으로 1910년 말까지 제18호를 발간하였는데, 1910년 10월 15일 기사에는 발행부수가 1천1백매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순한문 혹은 국한문체 일색이었던 신문이 순한글 염색약 광고가 늘면

5) 김영민, 앞의 책, 41면.

6)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인데, 잘못 영인된 것도 있고, 뭉개진 것, 중간 중간 빠진 호수가 있다.

7) 때로 2면의 〈社說〉같은 것을 옮겨 3면에 게재하였기도 하였다.

서 순 한글의 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어 한글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재정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慶南日報』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고가 주로 실리는 3면에 적은 분량의 소설을 익명으로 게재하다가, 점차 1면으로 고정하고 그 분량을 증가하였다. 소설 분량의 증가와 1면의 게재는 재정난의 연관 가능성을 넘어 신문 독자들과의 소설에 대한 흥미를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순 한글 광고를 실릴 때와 소설의 게재 이후 발행 부수의 변화에서 추정할 수 있다.

『慶南日報』의 연도별 간행상황<sup>8)</sup>

연도	조선총독부통계년보	보충
1909	(18)	18
1910	132	164
1911	132	176
1912	175	175
1913	172	172
1914	181	181
1915	1	1
계	793(811)	887

위 제시된 간행상황은 실제로 영남대학교가 『慶南日報』를 영인하면서 조선총독부의 통계를 다시 산출하여 제시한 것이다. 초기보다 한글 광고가 실린 1911년부터 1912년 한글 소설이 실렸을 때인 1912년에는 발행부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재정난을 언급했음에도 1914년 신문의 발행부수는 181번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후술하겠지만, 1912년 2월9일 〈玉蓮堂〉1회가 연재되었을 때는 가로 7분할에서 제일 위 경남일보 로고를 쓴 첫 칸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칸에서 4칸이 소설이었다. 여기에는 〈無情花〉와 〈玉蓮堂〉이 함께 연재되었다. 1912년 2월13일 〈玉蓮堂〉 3회

8) 『慶南日報』, 영남대학교 출판부, 해제 참조, 4면. 본 해제는 총독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해제의 자료를 참고 하였음.

는 이 소설 단독으로 6칸에서 3칸이 소설이었다. 이후의 신문은 소실되었는데, 마지막 영인된 신문은 1913년 8월 9일자다. 1년 6개월의 차이가 있음에도 여전히 風化小說(雲外雲) 1회와 2회가 1면 하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경남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소설을 1면에 실었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케 한다.

4면은 변화가 가장 많은 지면이었다. 〈官報〉, 〈農業界〉, 〈工業界〉, 〈商業界〉 등은 광고에 밀려 3면으로 옮겨졌으며 여기에 소설을 게재하였다.

『慶南日報』의 첫 연재소설은 〈巧奇冤〉이었다. 〈교기원〉 1회는 1912년 1월 6일 년초였다. 이때 이 소설은 신문 2면, 맨 하단에 실렸다. 7분할 중 겨우 한 칸이었다. 2회부터는 3면 제일 위 첫 칸에 실리기 시작했다. 분량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6회까지는 3면 첫 칸에 실렸으나, 7회부터는 1면 하단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1912년 1월 22일 월요일이었다. 이는 순한글과 순한문, 국한문체의 차이를 신문의 발행자들이 인식했다는 근거이다. 실제로 광고란이 있는 3면에 소설 〈교기원〉이 끝난 옆에는 순한글로 ‘금태위산’이라는 광고가 매번 게재되었다.

소설 〈교기원〉 9회차(10회인데 九로 오기되어 있음)부터는 〈琴汕居士〉(1회)라는 소설이 함께 1면에 연재되었다. 1912년 2월 3일부터 ‘1면’의 7분할 중 4분할이 소설로 채워졌다는 의미다. 1912년 2월 9일에는 1면에 소설 金汕生의 〈無情花〉(二: 앞의 회차 376호는 소설)가 〈巧奇冤〉 16회와 함께 연재된다. 〈교기원〉은 16회로 끝나고, 2월 11일부터는 금산생의 소설 〈無情花〉, 哀樂小說 〈玉蓮堂〉이 ‘著者 朴永運’을 명명하고 〈교기원〉의 후속작품으로 연재되기 시작했다. 〈금산거사〉, 〈무정화〉는 한문이 많이 섞인 소설인 반면, 〈교기원〉의 후속작품인 〈옥련당〉은 〈교기원〉처럼 순한글 소설이다.

〈無情花〉는 3회차로 끝났으며, 1912년 2월 13일부터는 박영운의 〈玉蓮

9) 風化의 뜻: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시키는 일.

堂)이 1면의 3칸을 차지하며 연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의 신문은 소실되었으나, 1913년 8월 9일자에 風化小說〈雲外雲〉 제1회 上卷이 연재된 것으로 보아 『慶南日報』의 소설연재는 폐간이 될 때까지 1면에 게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효녀, 효부, 열녀 등의 일화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소설이 확보하는 과정은 소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하였음을 보여주며, 또한 발행인들이 신문지면 1면에 두 편의 소설을 연재하면서까지 소설게재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신문발행의 목적 중 하나인 교육에 부합한 대상이 소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일보의 소설게재 양상의 분석으로 근대 초 지역민의 문학 수용 태도와 독서 문화의 형성을 실증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 3. 계몽의 문법: 인물형과 가치관의 제시 방식

이재선의 『한말의 신문소설』(한국일보사, 1975), 한원영의 『韓國開化期新聞連載小說研究』(一志社, 1990), 서광운의 『한국 신문 소설사』(해돋이, 1993), 『한국 신문 연재소설의 사적 연구』(푸른사상, 2010), 김영민의 『한국의 근대 신문과 근대소설』(소명, 2006), 『근대 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등은 소설에 대한 연구지만, 이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신문매체는 『황성신문』, 『大韓每日申報』, 『제국신문』, 『漢城旬報』, 『漢城週報』, 『독립신문』 등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말의 신문소설』은 유일하게 지역신문인 『경남일보』를 다루고 있으나, 이 연구는 박영운(朴永運)의 신소설에 그쳐 있다. 한원영이 『한국 현대 신문 연재 소설연구』(국학자료원, 1999)에서 유일하게 많은 『新慶南日報』, 『濟州新聞』, 『嶺南日報』, 『江原日報』, 『忠淸日報』, 『慶南新聞』, 『每日新聞』, 『釜山日報』, 『國際新聞』, 『大田日報』, 『中都日報』, 『光州日報』, 『京仁日報』,

『全北日報』 등의 소설들을 다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들 모두는 식민지 이후 시기의 신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설의 개념에 대한 편협한 인식, 소설의 개념에 대한 서구적 경도 등은 그동안 한국 근대소설의 수많은 유산, 특히 신문에 수록된 다양한 형태의 서사문학 자료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쪽으로 연구의 방향을 이끌었다.<sup>10)</sup>

지역신문의 소설들은 서울 중심의 신문에 비해 지역적 특색 및 지역인들의 정서를 반영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근대적 서사가 지역적 특색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내면화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식민지 언론 통제 하에 있던 『慶南日報』도 우회적 담론으로 정치 대신 계몽과 교육을 활용하였다. ‘비정치적 저항’ 혹은 ‘문화적 생존 전략’으로 소설을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학의 계몽 기능을 통해 신문이 지향했던 공동체 담론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전통의 정서를 대변했던 〈삼강의 일사〉 대신 소설로 교체한 이유다.

첫 연재 소설인 〈巧奇冤〉<sup>11)</sup>은 1912.1.6.토요일 1회로 시작하여 1912년 2월9일 16화로 끝난 소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기원〉 1화의 시작은 2면 하단 제일 밑에 7칸 중에서 겨우 한 칸만을 차지하는 분량으로 시작되었으나, 6회만에 신문지면 1면으로 옮겨져 다른 소설들과 함께 게재될 만큼 신문 소설의 위상을 높인 소설이다.

사람마다 죽함을 알고 남을 해할 생각이 없어야 복을 받을지오. 그렇지 않으면 그 해가 자기에게 돌아가니, 이 교기원의 수적을 자세히 들어 보시오.<sup>12)</sup>

『慶南日報』의 첫 연재소설 〈교기원〉은 1회 머리말에 위의 인용문을 내

10) 김영민, 『한국의 근대 신문과 근대소설』, 소명출판, 2006년, 61면.

11) 이하, 한글 〈교기원〉으로 표기.

12) 〈교기원〉1회에서 제시한 주제. 1912.1.6.토요일. 2면.

세웠다. ‘巧奇冤’이라는 제목만 빼고 모두 한글이었다. 한자 앞에도 고기원이라는 한글을 제시하였다. 이로 보아 한글을 읽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소설을 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설 〈고기원〉은 일제강점기라는 억압적 시대 상황 속에서 정치적 비판이 금지된 지역 언론이 문학을 통해 계몽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 목적을 잘 드러내는 서사적 사례다. 특히 이 작품은 악덕 계모와 진실 자식간의 갈등이라는 전통적인 가정 서사를 빌리되, ‘죽음을 알고 남을 해하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는 도덕적 명제를 중심에 두고 인물 형상화를 조직하였다. 이는 단순한 권선징악 구도를 넘어, 인간 내면의 욕망과 공동체 윤리의 경계를 성찰하게 하면서, 신문이 전달하고자 했던 당대의 가치체계를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의 핵심 인물인 계모 정씨는 단순한 악인이라기보다 ‘탐욕’과 ‘이기적 욕망’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그녀는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진실 자식인 서백과 서홍 남매를 구박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통해 공동체 내 도덕적 붕괴의 원인을 구현한다. 흥미로운 점은 계모가 단순히 여성 악인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재산이라는 근대적 요소에 접근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이 도덕적 심판의 대상으로 재현된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여성의 주체화 욕망이 여전히 가부장적 윤리와 계몽 이데올로기의 틀 내에서 부정적으로 제시되는 경향과도 상통한다. 이에 반해, 진실 자식인 서백은 선한 피해자로서의 정형화된 인물상으로 나타나며, ‘인내’와 ‘덕성’이라는 전통 미덕의 구현체로 기능한다.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는 단순한 수동성의 재현이 아니라 공동체 윤리를 대변하는 모범적 인간형으로의 제시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서백은 계모 정씨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이상적인 배필을 만나 행복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결말 구조는 행위의 인과적 결과를 ‘도덕적 질서의 회복’이라는 기제로 귀결시키는 고전적 서사 전통을 계승한다. 이때 ‘복’은 단순한 신의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를 실천한 개인에게 돌아오는 응보적 결과로 해석된다.

〈교기원〉은 이러한 인물 구성과 서사 구조를 통해 윤리적 자기검열과 타자에 대한 해악 금지를 주제로 삼는다. 계몽의 몰락은 욕망의 무분별한 추구가 초래하는 과국의 모델이며, 남매의 복된 결말은 선한 인내가 가져오는 공동체적 승인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당시의 식민지 현실 속에서 직접적인 정치 비판을 할 수 없는 언론이, 문학이라는 우회적 도구를 통해 사회적 질서의 회복과 도덕적 인간형의 제시라는 계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소설의 특징은 개인적 윤리의 강조를 통해 집단적 질서 유지라는 식민지적 요구를 은밀히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적 가치의 재해석을 통해 독자에게 자기 성찰과 공동체적 책임을 촉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삼강의 일사〉에서 강조했던 전통적 미덕을 ‘시대에 맞는 도덕적 메시지로 재구성’함으로써 식민지 언론 환경 속에서 문학이 어떻게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조건을 반영하며 기능할 수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교기원〉은 단순히 개인의 교훈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이라는 가장 밀접한 사회 단위 안에서 권력과 도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축소 사회로 기능한다. 결국 〈교기원〉은 지역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문학이 계몽의 도구로 선택된 이유를 총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작품이며, 이를 통해 당대 지역 주민들에게 요구되었던 윤리적 삶의 방식과 공동체적 이상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 4. 문학의 사회적 기능: 소설을 통한 실업 장려와 근대적 시민 양성

소설 〈琴山居士〉는 신문지면 1면에 소설 〈교기원〉10회와 함께 게재된

소설이다. 분량은 <교기원>이 16회 분량인데 비해 5회에 불과하다. 소설 <교기원>보다 앞에 게재되어 있으며 순 한글 소설은 아니고 한자를 섞어 대화방식으로 서술한 소설이다. <교기원>과 같은 자극적인 극적 사건이 없고 식민지 상황에서의 실업 문제와 근대적 시민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서사화하였다. 소설은 두 인물의 재회와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를 통해 단순한 개인 서사가 아닌 당대 사회의 계몽적 의제를 담아내는 전략적 구성을 보여준다.

(金) 오래간만에 만났을뿐 아니라 돌아다녔던 일이나 하시오. 그려. 인 정풍속이 어떠튼가요?( 1912.1.30.火. 372호)

(李) 나는 공상에 전력하여 속민경제의 만일을 구원코자 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경영한 일이 있으나 한가지도 이루지 못함은 나의 책임이니 (중략) 재산가는 교육, 실업은 가마귀 짧은 모양이고 허영심이 팽창하여 상점에 물품사دت 사가지고 부당하게 취하려고 분란이 극하다.(1912.2.3.土. 374호)

금산인 ‘金’과 금산을 찾아온 실업가 ‘李’의 담화를 통해 이 소설은 현실에서의 직접적인 정치적 저항이 억제된 상황 속에서 문학이 수행할 수 있는 우회적이고 실천적인 기능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진단과 근대적 경제 인식, 시민 윤리의 내면화를 서사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회고나 우정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당대 실업 문제와 근대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 개인의 책임 윤리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포함한다. 서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리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금산의 고립된 심리 상태와 현실 회피적 태도가 묘사된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외부 세계에 대한 환멸과 자기 성찰 속에 침잠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의 방문과 양자 간 대화를 통

해 서사의 전환점이 형성되는 국면이다. 이는 자신의 사업 실패 경험을 토대로 금산에게 현세의 변화와 산업 구조의 전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실업 현실에 대한 이의 분석과 대응 방안의 제시로 이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금산 역시 점진적으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내면화한다. 이러한 서사의 전개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나 해소를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한 담론적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추가 발언한 “현세는 상업시대요. 공업은 상업의 母(어머니)라”는 구절은 당시 농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 인식에서 벗어나 근대 산업 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핵심적 선언으로 기능한다. 이는 농본주의적 가치체계의 한계와 시대 착오성을 지적하며, 공업 중심의 생산과 상업 중심의 교류를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의 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발맞춘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지 두 인물 사이의 사적 대화를 넘어, 당시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민 정체성의 모색을 촉구하는 계몽적 메시지로 작용하였다.

금산과 춘는 각기 다른 성격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근대적 시민으로서의 이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금산은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기 성찰에 머무르는 내향적 인물로, 경제적 실패보다는 윤리적 성찰과 정신적 가치에 무게를 두는 유형이다. 반면 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로,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업 현장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는 ‘근대적 기업가 시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물 유형의 대비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 아니라, 각기 다른 방향에서 근대적 시민 윤리를 구성하는 상보적 모델로 기능한다.

두 인물은 내적 갈등과 상이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 공감과 동조를 통해 새로운 실업 담론을 공동 구성한

다. 이는 문학 서사가 개인의 정서적 교감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윤리를 내면화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금산이李의 조건을 경청하고 점차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은, 독자 스스로도 인식의 전환과 자기 반성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계몽적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은 단지 인물 간의 설득을 넘어, 당대 문학이 추구했던 계몽주의적 목적의 구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작품 속 李가 강조하는 실업 극복의 방안은 단순히 국가나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노력과 집단적 윤리 실천을 통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곧 ‘지식인-실업가형 시민’이라는 새로운 시민 유형의 형성을 유도한 것이며,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시민 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두 인물 간의 관계는 당시 남성 지식인 계층이 공유하던 ‘도덕적 공동체’의 은유로 기능하며, 각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이 공동체의 안녕과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작품 말미에서 금산은 이의 논리에 공감하며 “진심이 있으면 금속이나 돌조차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발언을 한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도덕적 정당성이 현실의 장벽을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명하는 것으로, 실업 문제 역시 단지 외부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극복가능한 문제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 대사는 독자들에게 자립과 근면, 그리고 책임감을 강조하며, 실업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도덕적 수행과 연계시킨다.

〈금산기사〉는 표면적으로는 두 인물 간의 재회와 회고로 구성된 서사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지역 산업의 낙후성과 근대화의 필요성을 통찰하는 이념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실업 문제는 단지 개인의 역량 부족이나 운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와 인식 체계의 전환이 요구되는 복합적 문제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 해결책을 제도적 개혁이나 정치적 저항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주체적 자각과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도모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러한 접근은 당시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사회 조건에서 문학이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적 모색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금산거사〉는 독자에게 실업과 근대화라는 거시적 문제를 단순히 정보로 전달하지 않고, 친숙한 인물과 대화의 형식을 빌어 감정이입을 유도하고, 그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자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문학이 단지 오락이나 감상의 대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윤리와 이념을 전달하고 내면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신문이라는 매체적 조건 아래, 이 작품은 지역 독자층의 현실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금산거사〉는 지역 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접근하고, 문학의 형식 속에서 현실 대응의 전략을 구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실업이라는 구체적 문제를 중심에 두되, 그것을 개인의 도덕성과 공동체의 윤리적 연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계몽주의적 기획을 담고 있다. 이는 〈삼강의 일사〉처럼 과거의 문학 형식이나 이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독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문학적으로 사유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윤리를 내면화시키는 적극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한 것이다. 그것이 신문지 1면의 고정란이었던 〈삼강의 일사〉 대신 소설을 대체한 가장 큰 이유이다.

소설의 서사적 특성은 독자에게 더 큰 감동과 몰입을 선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학의 서사적 형식은 복잡한 윤리적 메시지를 단순화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가 교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특히, 선악 구도와 제공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상인물의 행위나 담화로 형상화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교육적 목적과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신문의 1면에 소설을 실은 이유는 신문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

어서, 독자의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이다. 소설을 통해 일상적 교훈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문화적 일체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규범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신문의 소설은 그 지역의 정서와 발행인들의 의도에 가장 부합한 주제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소설 형식으로 대체한 것은 문학적 형식의 힘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사회 내의 문화적 통합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 4. 결론

통감부는 민심 회유책으로 1909년 신문지법에 의해 민간지 몇 개를 허가하였고, 이때 등장한 신문이 서울의 『大韓民報』·『大同日報』·『時事新聞』이었고, 경남 진주의 『慶南日報』였다.

『慶南日報』는 한국의 특별한 근대를 맞이하는 지역지식인들이 근대의식이 드러나고 전환되는 지점을 잘 보여주는 신문이다. 단순히 중앙의 담론을 하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지역의 독자와 밀착한 방식으로 ‘문학적 계몽’을 수행한 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식민지 시기 특유의 검열 환경 속에서도 정치적 직접 발언을 피하면서, 문학이라는 형식 속에 사회 문제 해결의 방향성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이 신문이 실업 장려, 근대 시민 양성, 지역 경제 자립 등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문학 연재를 통해 조명한 것은, 지역신문의 사회문화적 역할이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음을 입증한다. 그러한 점에서 『慶南日報』가 보여주는 소설의 연재과정은 근대 국민문학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문학’이 어떻게 지역성과 사회적 기능을 매개로 자율

성과 주체성을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신문이 문학을 통해 보여준 계몽적 서사는 단지 ‘문학의 정치화’가 아니라, 오히려 문학의 사회적 윤리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당대 지식인들의 실천적 기획이기도 하다. 이는 『慶南日報』가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대응의식을 부여하고, 당대 현실에 대한 집단적 사유를 가능케 한 중요한 문화적 통로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점에서, 『慶南日報』에 실린 소설들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신문 발행인들이 시민 공동체 형성과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문학을 활용했던 증거로 기능한다. 이는 곧 식민지 시기 지역신문의 문화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단초가 된다. 이처럼 『慶南日報』는 문학을 통한 사회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신문이자 계몽 언론’으로서의 복합적 역할을 수행했다.

근대 초기 지역신문 연구는 여전히 변방에 위치해 있다.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다른 지역신문들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리라 기대해 본다. 또한 지역신문에 대한 연구의 지평도 확장되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慶南日報』영인본(上), 民族文化研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6, 1-384면.  
『慶南日報』영인본(下), 民族文化研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6, 1-708면.

2. 국내자료

- 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 소명출판, 2006, 35-50면.  
김희주, 「근대 초기 한국의 지역신문 연구」, 『우리어문연구』74호, 1922, 10-29면.  
서광운, 『한국 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50-75면.  
이재선, 『한말의 신문소설』, 한국일보사, 1975, 13-20면.  
\_\_\_\_\_, 『한국 소설사』, 민음사, 2004, 23-30면.  
이해창, 『한국 신문사 연구』, 성문각, 1971, 25-40면.  
전은경, 「근대계몽기 문학과 독자의 발견」, 역락, 2009, 40-50면.  
차배근 외, 『우리 신문 100년』, 현암사, 2001, 55-70면.  
최준, 『한국 신문사』, 일조각, 1960, 20~31면.  
최기영, 『대한제국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17-27면.  
최윤경, 「1910년 전후 《경남일보》의 사회개조론과 정치적 성격」, 부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22~35면.  
한원영, 『韓國開化期 新聞連載小説研究』, 一志社, 1990, 22-55면.

<Abstract>

##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novels of a local newspaper 『Gyeongnam Ilbo』 in the early modern period

Kim, Heej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ovels serialized in the Gyeongnam Ilbo, the only local newspaper in the early modern period, and to explore their meaning. The Gyeongnam Ilbo was the only local newspaper in early modern Korea, published in the Jinju area of Gyeongnam on August 19, 1909, with the approval of the Korean Empire government. With Jang Ji-yeon as the editor-in-chief, the shareholders' meeting was held on October 12 of the same year, and the first issue was published three days later on October 15. Novels were not included in the purpose of publishing the Gyeongnam Ilbo, but it seems that there was an attempt to achieve the literary purpose of education and enlightenment through novels. At that time, newspapers were mainly focused on conveying information such as laws, administration, and central political trends, and there was almost no content that projected the daily lives or emotions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pure Korean novels was a turning point for newspapers to communicate emotionally with local residents as a medium. In addition, the change in writing style to pure Korean is interpreted as considering new reader groups such as women.

The published novels include <Gyogiwon (巧奇冤)>, <Geumsan Geosa (琴汕居士)>, <Mujeonghwa (無情花)>, <Okryeondang (玉蓮

堂)>, and <Unoeun (雲外雲)>. These novels gradually began to have the status of literary works by disclosing the author's name and distinguishing the genre. In particular, <Gyogiwon> and <Geumsan Geosa> remained in complete form, so this study focused on these two works. In the beginning, 『Gyeongnam Ilbo』 focused only on the function of providing information, and there was almost no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In that respect, the process of introducing novels in 『Gyeongnam Ilbo』 is significant as an example of expanding the function to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Samgungui Ilsa>, which was a fixed column on the front page, was replaced by a novel shows a shift in content according to reader demand, breaking away from Confucian moral discourse. This can be evaluated as an important case in which newspapers attempted to form a new point of contact with local residents and perform the integrated functions of literature, education, and enlightenment in early modern Korean society.

Key words: Gyeongnam Ilbo, colonial period, Jinju region, local newspaper, pure Korean novel, Korean-style novel, local newspaper novel, new novel, modern novel

투 고 일: 2025년 2월 27일

심 사 일: 2025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6월 13일

수정마감일: 2025년 6월 28일